

# 일본인 남녀의 분노 표출 양상에 대한 연구\*

—다툼 장면의 분석을 통하여—

김 지원\*\*

(e-mail : dudmdi@naver.com)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사용 양상 및 고찰             |
| 2. 선행연구   | 4.1. 남녀의 분노 표출 발화유형 사용 양상 |
| 3. 연구방법   | 4.2. 분노 표출 양상의 용례 분석      |
| 3.1. 분석자료 | 5. 맺음말                    |
| 3.2. 분석방법 |                           |

キーワード：怒り表出の様相(anger expression pattern), 言語行動(language behavior), 男女談話(gender differences in conversation), 性差(gender differences), 喧嘩場面(argument scenes)

## 1. 들어가기

우리는 살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순간을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 또한 상대와의 관계나 거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추어 감정을 억제하거나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노를 표출할 경우 공격적인 표현과 불쾌한 감정이 나타나기 쉬우며 그 양상은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sup>1)</sup>이기 때문에 보다 적나라하고 다양한 표현방식

\* 이 논문은 김지원(2015)의 석사학위 논문 「분노 표출 양상에 관한 한·일 대조연구-이성간의 다툼 장면을 중심으로-」를 수정, 가필하여 작성.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일본어학전공.

1) Brown&Levinson(1987)에 의하면 대화 참가자는 서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체면을 손상시키는 언동(Face-Threatening Acts, 이하FTA)은 되도록 피하며, 혹은 FTA를 해야 할 경우 FTA를 최소화하기 위해 완곡하고 애매한 표현(Off record)을 사용하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명백하고 간결한 표현이나 의외나 명령과 같은 급박한 상황일 때, 불만을 표현할 때 등 상대방의 체면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등은 청자의 체면을

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의 분노 감정에 관한 종래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인은 대체적으로 감정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木野(2000)는 일본 사회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인은 타인에게 분노의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김광태(2006)는 한국인은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만 일본인은 음성이나 행동에 의한 직접적인 감정표현은 그다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rgyle(1986) 또한 일본인은 영국인에 비해 분노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어는 남녀의 구별이 뚜렷한 언어라 알려져 왔으며 언어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정중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井出1985, 宇佐美2005). 감정표현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표현이 풍부하며(Barrett et al.,2000, 鈴木2008),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미소 짓는다는 연구도 있다(LaFrance et al.,2003).

그러나 담화 상의 일본인 남녀의 분노 표현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일본인은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도 종래 연구와 같이 분노 표출을 억제하는가, 또 분노의 감정표현에서 성차(性差)가 나타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의 영상자료에서 나타난 친밀도가 높은 남녀간<sup>2)</sup>의 다툼 장면의 용례를 통해 분노 표출 양상을 분석한다.

## 2. 선행연구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분노 감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언어표현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와 담화상의 분노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송연희(2014)는 일본인의 분노 표현 사용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일본 드라마에서 나타난 분노의 발화유형을 ‘감정어감정표출’ ‘감동사감정표출’ ‘이유설명’

---

손상시킬 수도 있는 언동을 그대로 행하는 방법(with redressive action)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2) 연인 사이 혹은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의 다툼 장면을 고찰한다. 메이너드(2001:12-17)는 연인간의 상황은 사회의 습관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하면서 성(性)을 의식한 회화스타일을 고찰하는 것도 일본문화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밝혔다.

‘이유질문’ ‘금지요구’ ‘행위개선요구’ ‘경고’ ‘확인요구’ ‘비난’인 9개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감정어감정표출’을 가장 많이 사용했지만 나머지 발화유형도 골고루 사용했으며 간접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밝혔다.

김지원(2015)은 한·일 모어 화자의 이성간의 다툼에서 나타나는 ‘怒(노)’ 표출 전략을 대조연구 하였다. ‘怒’를 표출할 때 나타나는 언어행동을 ‘빈정거리기’ ‘무관계제시’ ‘경고·협박’ ‘설명요구’ ‘주장표현’ ‘상대의 발언을 거부’ ‘이야기 중단시키기’ ‘경멸표현’인 8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비언어행동을 ‘동작’ ‘주변언어’ ‘접촉행위’ ‘시선’ ‘자리이탈’인 5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빈정거리기, 설명요구, 경고·협박’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일본어 모어 화자는 ‘주장표현, 무관계제시, 이야기 중단시키기, 상대의 발언을 거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밝혔다. 비언어행동의 경우 ‘시선’을 제외한 ‘동작, 주변언어, 신체접촉, 자리이탈’ 전략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비언어행동을 구사하여 ‘怒’를 표출한다 밝혔다.

이와 같이 분노 표출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감정형용사, 관용구, 오노매토피어(onomatopea) 등을 분석한 연구와 담화 상에서 분노의 언어행동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담화에서 나타나는 일본인 남녀의 분노 양상을 분석하여 성차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지원(2015)은 한·일 남녀의 분노 표출 전략이 언어행동, 비언어행동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조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라 할 수 있지만 성차보다는 한·일 이문화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친밀도가 높은 남녀 간의 다툼 장면에서 분노의 표출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남녀별로 어떠한 특징과 차이로 나타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분석자료

본고는 남녀의 연애를 다룬 일본 영화 및 드라마에서 연인 간의 다툼 장면을 추출하여 문자화한 것을 분석자료로 하였다. 영상자료 20편에서 나타난 다

툼 장면 35건을 연구범위로 선정하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툼 장면에서 나타난 분노 표출 양상을 발화유형의 특징에 따라서 언어행동을 분석하였다.

<표1> 일본 영상자료<sup>3)</sup>

타이틀	개봉·방영연도
すべては君に出逢えたから	2013
新しい靴を買わなくちゃ	2012
ただ、君を愛してる	2006
僕の初恋を君にささぐ	2009
今日、恋を始めます	2012
赤い糸	2008
恋空	2007
ソラニン	2010
モテキ	2011
潔く柔く	2013
僕たちがいた	2012
NANA	2005
ハナミズキ	2010
ラストシンデレラ	2013
花より男子	2005
花より男子2	2007
今日は会社休みます	2014
イタズラなKiss	2013
最高の離婚	2013
私が恋愛できない理由	2011

이어서 분노 감정이 나타난 발화문 수와 발화유형 수는 <표2>과 같다.

<표2> 발화문 수와 발화유형 수<sup>4)</sup>

	발화문 수	발화유형 수
남성	124	176
여성	131	189
합계	255	365

### 3.2. 분석방법

Lakoff(1987)는 분노에는 ‘화가 난 원인(1단계), 화가 발생하여 신체적 증상을 체험(2단계), 화를 억누르려 하는 시도(3단계), 화의 억제가 불능(4단계), 화

3) 연인 사이 혹은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의 격한 다툼 장면이 나타난 드라마 및 영화를 선정하였다.

4) ‘발화문 수’는 화자가 실제 발화를 한 개수이며, ‘발화유형 수’는 하나의 발화에 복수의 발화유형이 사용된 예문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다르게 나타나며, 발화문 수보다 발화유형 수가 더 많다.

가 폭발하여 보복(5단계)인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는 분노 인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Lakoff(1987)가 제시한 분노 인지 모형을 참고로 하여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두 나타난 ‘격한 분노 표출 장면’만을 고찰하였으며, 이성 간의 일대일 대면 회화에서 두 사람 간의 다툼이 일어나 서로 격하게 화를 내는 장면을 ‘분노 표출 장면’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Lakoff(1987)의 분노 인지모형에 맞추어 ‘분노’가 발생하는 원인의 시점(1단계-화가 난 원인)부터 화가 폭발하여 보복(5단계)하는 장면까지 모두 문자화(文字化)하여 연구범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본고는 김지원(2015)이 제시한 분노 표출 전략과 송연희(2014)가 제시한 분노의 발화유형을 참고로 하여 본고의 다툼 장면 데이터에서 나타난 특징에 맞추어 수정·첨가하였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3>과 같이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3> 분노 표출 발화유형

발화유형	예문
주장표현하기	상대의 적절치 않은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충고하는 등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강하게 표명하는 것.
감정어 표출	a. 「まったく」「むかつく」와 같이 분노의 감정을 감동사 및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출하는 발화유형. b. 상대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행위가 아닌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사적 의문문 <sup>5)</sup> ’도 이에 해당된다.
이유설명하기	화자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 상황을 명시적으로 전달하거나 이유를 설명하는 것.
설명요구하기	「なんでそんなことするの?」와 같이 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설명을 요구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 상대의 대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수사적 의문문과는 다르다.
상대의 발언거부	a. 「はあ?」와 같이 상대의 발언에 의문을 표하거나 상대의 발언을 그대로 반복하여 되물으며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 b. 상대의 말을 자르고 도중에 끼어드는 행위
빈정거리기 <sup>6)</sup>	진실과는 반대되는 말. 긍정적인 내용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하는 발화 행위.
이야기 중단시키기	「もう帰る」「やめよう」와 같이 말함으로써 다툼을 피하는 것
경고·협박	상대에게 경고하거나 협박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

경멸·비난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깔보며 말하는 거친 말투. 경멸어. 속어.
-------	------------------------------------

이어서 분노 표출 발화 유형의 판단 방법에 대한 예시를 자료[1]과 같이 제시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宇佐美まゆみ(1997), 曹英南(2013)의 문자화 규칙을 참고로 하였으며 일부 표기는 수정을 가하였다.

## 자료[1]

발화자	문자화 내용 <sup>7)</sup>	분노 표출 발화유형
1남	a.それをゆうならみゆきだっせ [大介とかいうやつがいるのにじゃあなんで俺とキスしたんだよ b.ていうかあいつ結婚してんじゃん。嫁いるじゃん。不倫とか平気でしてんじゃねー [よ。	a.설명요구하기 b.주장표현하기
2여	★なにを!!!	감정어 표출 (수사적 의문문) 상대의 발언거부 (말을 자르고 도중에 끼어드는 행위)
3여	★平気じゃないわよ!!!正しいと思ったことないよ一度だっせ。	상대의 발언거부 (말을 자르고 도중에 끼어드는 행위), 주장표현하기

最高の離婚(2013) 4화

자료[1]에서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연인도 친구도 아닌 애매한 태도로 대하는 여성에게 화가 난 상황이다. '1남'은 「それをゆうならみゆきだっせ大介とかいうやつがいるのにじゃあなんで俺

- 5) 「何すんの!」와 같이 응답을 요하지 않는 의문문(「何」「誰」「どこ」)을 사용함으로써 비난을 표출하는 방식.
- 6) '빈정거리기'는 岡本(2007)의 정의에 따라 '진실과는 반대되는 말' '긍정적인 내용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를 '빈정거리기'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가게 점원의 태도가 불친절했을 때 '저 가게는 점원 교육이 매우 잘 되어 있어'와 같이 말함으로써 진실과 반대되는 의미를 전하며 비판하는 경우는 '진실과는 반대되는 말'의 빈정거리기에 해당되며, 회의에서 발표자의 설명이 너무 상세하고 길어 지루했을 때 옆 사람에게 '정말 자세한 설명이었네'라고 말하면서 사실과 반대되지는 않지만 빈정거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긍정적인 내용인 것처럼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에 해당된다.
- 7) 발화 중간에 상대방이 말을 끼어들었을 경우, 끼어든 시점을 기호 [ '로 표기 후, 기호★'로 겹치게 된 화자의 발화를 기술한다.

とキスしたんだよ。(그런 얘기라면 미유키야말로 다이스케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럼 왜 나랑 키스한 거야.)」라는 ‘설명요구’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이어 「ていうかあいつ結婚してんじゃん。嫁いるじゃん。不倫とか平気でしてんじゃねーよ。(것보단 개 결혼했잖아. 아내 있잖아. 불륜 같은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충고하는 ‘주장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여’는 상대의 말을 자르고 도중에 끼어드는 ‘상대의 발언거부’ 유형을 사용하면서 상대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행위가 아닌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여’에서는 도중에 말을 끼어드는 ‘상대의 발언거부’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는 ‘주장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 4. 사용 양상 및 고찰

### 4.1. 남녀의 분노 표출 발화유형 사용 양상

본장에서는 남녀의 분노 표출 발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나타난 남녀의 분노 발화유형 사용 양상은 <표4>와 같다.

<표4> 남녀의 분노 표출 발화유형 사용 양상

발화유형	남성	여성
주장표현하기	57(32.4%)	70(37%)
감정어 표출	13(7.4%)	19(10.1%)
이유설명하기	16(9.1%)	15(7.9%)
설명요구하기	13(7.4%)	38(20.1%)
상대의 발언거부	21(11.9%)	19(10.1%)
빈정거리기	12(6.8%)	8(4.2%)
이야기 중단	16(9.1%)	8(4.2%)
경고·협박	3(1.7%)	2(1.1%)
경멸·비난	25(14.2%)	10(5.3%)
합계	176(100%)	189(100%)

남녀 모두 ‘주장표현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남녀 간의 다툼 장면’에서는 일본인은 대체적으로 분노 표출을 억제한다는 종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에게 ‘이유설명하기’ ‘상대의 발언거부’ ‘빈정거리기’ ‘이야기 중단시키기’ ‘경고·협박’ ‘경멸·비난’ 유형이 더 많이 나타났고, 여성에게 ‘주장표현하기’ ‘감정어 표출’ ‘설명요구하기’ 유형이 더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남성의 발화유형 수는 176, 여성의 발화유형 수는 189로 남성보다 여성의 발화유형 수가 더 많지만, 여성은 주로 ‘주장표현(37%)’과 ‘설명요구(20.1%)’를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다양한 발화유형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정형화된 유형으로 분노 표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nsdell(1964)은 남자는 뇌의 좌반구만 언어기능을 전달하지만 여자는 뇌의 양측 반구 모두가 언어기능에 활용되기 때문에 여자가 언어를 더 잘 구사한다고 밝혔지만, 분노를 표출할 때는 오히려 남성이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언어를 구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남성에게 ‘경멸·비난’ 유형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다툼 장면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직접적인 화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에 비해 조금하고 공격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보다 ‘이야기 중단시키기’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남성은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그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에게 ‘설명요구하기’ 유형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성은 의문형을 사용하며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요구하기’의 경우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どうゆう意味?(무슨 뜻이야?)」 「なんで?(왜?)」 「なにが?(뭐가?)」 「なんでゆってくれなかったの?(왜 말해주지 않았어?)」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유를 물어 대답을 요구하는 예문이 많았지만, 남성의 경우 「どう考えてんの?だってさ経済的なことだとかさ、例えば、なに、そのなんつうの、その俺の夢だとかさ。(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뭐라 해야 하나 내 꿈이라든가.)」 「俺らしいってなに?じゃあ俺はどうすりゃいい?君の言動はいちいちプレッシャーなんだよ(나 다운 게 뭐야?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 네 언동은 하나하나 압박이야.)」와 같이 ‘설명요구’ 뒤에 바로 이어서 ‘주장표현’을 하거나 ‘이유설명’을 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의문문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Deborah Yurgelun-Todd et al.(2002)에 의하면 뇌에서 감정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는데 사춘기 소녀들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이 ‘사고, 추리, 언어’ 등과 같은 고등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슬피하는 이유를 별 어려움 없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소년들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뇌의 ‘편도(扁桃)’에 고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여성에게 ‘주장표현’이 많이 나타난 것과 여성이 ‘감정어’를 사용하여 거리낌 없이 감정을 잘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유전적인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으며 청소년 시기 이후 성인 남녀의 언어행동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할 수 있다.

## 4.2. 분노 표출 양상의 용례 분석

### 4.2.1. 주장표현하기

‘주장표현하기’란 상대의 적절치 않은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충고하는 등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강하게 표명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장표현 발화유형은 남성 32.4%, 여성 37%로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문말(文末)에 「ーじゃん」「ーじゃない」를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문(1)

남: 誰がそんなことしてくれて頼んだんだよ。a.そんなことしてもらうために連れてきたんじゃない。  
俺のため? 何だよそれ。b.余計なことしないでくれよ。

여: 余計なこと?

花より男子(2005) 3화

예문(2)

남: ずいぶん派手にやってくれたな。

여: 入江君だって私の入江君に対する気持ちみんなで馬鹿にして笑ってたじゃない。

イタズラなキス(2013) 5화

예문(1) a의 「そんなことしてもらうために連れてきたんじゃない。(그런 거 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야.)」와 같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강하게 표명할 때 사용

되는 경우와 예문(1) b의 「余計なことしないでくれよ。(쓸데없는 짓 하지 마.)」나 예문(2)의 「入江君だって私の入江君に対する気持ちみんなで馬鹿にして笑ってたじゃない。(이리에야말로 이리에에 대한 마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놀리고 웃었잖아.)」와 같이 상대의 적절치 않은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충고하는 경우로도 나타났다.

#### 4.2.2. 감정어 표출

‘감정어 표출’은 ‘감동사’를 사용하거나 상대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행위가 아닌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이다. 남성 7.4%, 여성 10.1%로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성이 다양한 감정어를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3)

여: あんたのお母さんに招待されたのよ。

남: まったく。あのババアから招待されてのこのこやってくるなよバカ。

여: はあ?

花より男子2(2007) 2화

예문(4)

남: いろんな女と遊びたくなったんだよ。

여: 何それ。

恋空(2007)

예문(3)에서 남자는 「まったく」와 같은 ‘감정어’를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예문(4)에서 여자는 「何それ(뭐야 그게)」와 같이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하였다. 메이너드(2001)는 다툼 장면에서 「何」를 사용한 의문문은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표현이며 「何すんのよ」「何言ってるの」는 상대의 언행이나 언동을 비판하는 말이라 밝혔다.

#### 4.2.3. 이유설명하기

‘이유설명하기’는 화자가 분노가 발생한 상황이나 원인을 명시적으로 전달하

거나 이유를 설명하는 발화유형이다. 남성 9.1%, 여성 8%로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예문(5)

여: もう触らないで。信じられないんだよ椿君が。椿君は大事なことも何も話してくれないじゃん。  
お母さんのことも、ナナさんのことも。

남: ナナのこと?

今日、恋を始めます(2012)

예문(6)

여: そんな面と向かって言えるわけないじゃん。

남: プレゼントだってそうだよ。俺があげたネックレス一度もつけなかったじゃねーかよ。 8)

私が結婚できない理由(2011)

예문(5)에서 여자는 「信じられないんだよ椿君が。(믿을 수 없어 츠바키를.)」 라 말하며 뒤이어 「椿君は大事なことも何も話してくれないじゃん。お母さんのことも、ナナさんのことも。(츠바키는 중요한 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잖아. 어머니 일도, 나나씨 일도.)」 라며 화가 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문(6)에서도 남자는 「プレゼントだってそうだよ。俺があげたネックレス一度もつけなかったじゃねーかよ。(선물도 그래. 내가 준 목걸이 한번도 안 했잖아.)」 라며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4.2.4. 설명요구하기

‘설명요구하기’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이다.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감정어 표출’의 ‘수사적 의문문’과는 다른 발화유형이다. 남성 7.4%, 여성 20.2%로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다툼 상황에서 여성은 의문문을 사용하는 등 설명을 요구하며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이 남성보다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는 林始恩(2016)과 Lakoff(1975)에서도 밝혀

8) 이전 대화에서 남녀는 서로에게 차였다고 믿고 있다. 남자는 자신이 차인 것이라는 증거로 여자가 자신과 손도 잡지 않았고 좋아한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자신이 선물한 목걸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지적·충고하는 ‘주장표현하기’와는 다른 발화유형이라 할 수 있다.

졌다. 특히 林始恩(2016)은 친구끼리 비난 표현을 할 때 여성은 남성보다 확인을 구하거나 ‘의문문’과 ‘감정표출’이 많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安達(1999)는 일본어의 의문문의 특징은 화자의 감정표출과 청자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기능이 있다 밝혔는데, 본고의 결과에서는 화자의 분노 표출과 청자에게 잘못에 대한 설명 또는 사죄의 행위를 요구하는 기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예문(7)

여: あなた馬鹿じゃないの? そんなの誘導尋問じゃない。ちょっと綺麗な人だからって。

남: そうじゃないよ。

여: じゃあ、なに?

僕の初恋を君にささぐ(2009)

예문(8)

남: 何しに来たんだよ。

여: 何でゆってくれなかったの?

남: 関係ねーからだよ。

恋空(2007)

예문(7)에서 여자는 「じゃあ、なに?(그럼 뭐데?)」와 같이 말하며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문(8)에서도 여자는 「何でゆってくれなかったの?(왜 말해주지 않았어?)」와 같이 이유를 묻고 있다.

#### 4.2.5. 상대의 발언거부

‘상대의 발언거부’는 「はあ?」와 같이 상대의 발언에 의문을 표하거나 상대의 발언을 그대로 반복하여 되물으며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이다. 또한 상대의 말을 자르고 도중에 끼어드는 행위도 ‘상대의 발언거부’ 유형에 해당한다. Stephen(1985)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상대방이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화의 방해라 하였다.

남성 11.9%, 여성 10.10%로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으며 ‘상대의 발언거부’ 유형 중 ‘말을 자르고 도중에 끼어드는 행위’는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예문(9)

여: 私の仕事、そうゆうふう<sup>1</sup>に思ってたんだ。

남: そうじゃなく [て。

여: ★そうゆ<sup>2</sup>ったじゃない。

남: めんどくせ<sup>3</sup>いな。

여: めんどくさい? へえーあの人はめんどくさいこと言わなそうだもんね。

すべては君に出逢えたから(2013)

예문(9)에서 「そうゆ<sup>2</sup>ったじゃない。(그렇게 말했잖아.)」는 말을 끼어드는 ‘상대의 발언거부’ 유형이면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충고하는 ‘주장표현하기’ 유형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여성의 발화 「めんどくさい?(귀찮아?)」는 남자의 발언 「めんどくせ<sup>3</sup>いな。(귀찮아.)」를 되물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2.6. 빈정거리기

‘빈정거리기’는 진실과는 반대되는 말이나 긍정적인 내용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하는 발화 행위이다. 남성 6.8%, 여성 4.2%로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예문(10)

남: 花枝さんは俺が大事じゃないの? そこまでいい人ぶって楽しい?

여:今日は帰ります。

今日は会社休みます(2014) 5화

예문(11)

남: 食べたくありません。

여: はあ? あたしがよそのよくわからない男のために作った手料理の残りものだとそっちが勝手に  
思ってるだけなんだけど別に気にならないんだと思うんだったら食べればいいんじゃないのと  
思うだけ [ど。

남: ★俺は別にそっちがよくわからないしょうもない男のために作った食べ合わせの悪そうな手料理の残り物だとはさらさら思っていないけど仮にそうだとしても別にこっちは気にならないけどただ  
ただ食べたくないなという状態なんだけど。

最高の離婚(2013) 4화

예문(10)에서 남성은 「そこまでいい人ぶって楽しい?(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 즐거워?)」라며 ‘좋은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하여 빈정거리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예문(11)에서도 남성은 「よくわからないしょうもない男のために作った食べ合わせの悪そうな手料理の残り物だとはさらさら思っていないけど。(보잘것없는 잘 모르는 남자를 위해 만든 조합 나빠 보이는 음식 남은 거라곤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이라 말하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4.2.7. 이야기 중단시키기

‘이야기 중단시키기’는 「関係ないじゃん(상관 없잖아)」과 같이 말하며 대화를 중단, 회피하거나 「もう帰る(돌아갈래)」와 같이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발화 유형이다. 남성 9.1%, 여성 4.2%로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은 다툼을 중단시키거나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할 수 있다. Tannen(2001) 또한 남녀 언어의 성차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자른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문(12)

남: 言っとくけどそんなんじゃないから。

여: え?なに?そんなんて。

남: だから先輩には本当に話聞いてもらっただけで。てっかいいよもう。

여: え、なに。途中で止めないでよ。

すべては君に出逢えたから(2013)

예문(13)

여: お母さんの話になるといつもそれじゃん。意地張ってないで会いに行っておきな [よ

남: ★関係ねーってつってんだろう。

今日、恋を始めます(2012)

예문(12)에서 남성은 「てっかいいよもう。(아 됐어)」라 말하며 회피하려 하며, 예문(13)에서 남성은 여성의 대화에 도중에 끼어드는 ‘상대의 발언거부’유형을 사용하면서 「関係ねーってつってんだろう。(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잖아)」라 말하

며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며 대화를 끝내려 하고 있다.

#### 4.2.8. 경고·협박

‘경고·협박’은 상대에게 경고하거나 협박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성 1.7%, 여성 1.1%로 본고의 발화유형 중 가장 적게 나타났다.

예문(14)

여: 手術を受けないなんて絶対言わせない琢磨が死んだらあたし [も].

남: ★まゆ。それ以上ゆったら本気で嫌いになるぞ。

僕の初恋をキミに捧ぐ(2009)

예문(15)

여: 別れるよ。そうゆうこと言ったら別れるよ。

남: うん、うん、じゃあもう、わかったもう仕方ないんじゃない?もう。

新しい靴を買わなくちゃ(2012)

예문(14)의 「それ以上ゆったら本気で嫌いになるぞ。(그 이상 말하면 진심 싫어진 다.)」와 예문(15)의 「別れるよ。そうゆうこと言ったら別れるよ。(헤어질 거야. 그런 말 하면 헤어질 거야)」와 같이 ‘경고’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상대에게 주의를 주는 언행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 4.2.9 경멸·비난

‘경멸·비난’ 유형은 상대의 결점이나 잘못을 나쁘게 말하고 헐뜯는 매우 직접적인 분노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남성 14.2%, 여성 5.3%로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거친 표현을 사용한다는 종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김귀순(2011)은 질문을 할 때에도 여성보다 남성이 두 배 이상 적대적 성격을 띠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반대 의사를 말할 때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하였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언어사용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16)

남: やっぱしてんじゃねーか。病室でキスなんかしあがってふしだらな女だなてめえは。

여: あたしが今どこで何しようとあなたにとやかく言われる理由なんてないと思うけど。

花より男子2(2007) 5화

예문(17)

여: やっぱりあなたは変わってない。赤札張っていじめやるような最低最悪な人間だよ。人間のくずだよ。

남: 何だと!!!

花より男子(2006) 6화

예문(16)에서 남성은 「病室でキスなんかしあがってふしだらな女だなんてめえは。(병실에서 키스나 하고 해픈 여자야 니는)」이라 말하며 「てめえ」와 같은 비속어와 「ふしだら」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예문(17)에서 여성은 「赤札張っていじめやるような最低最悪な人間だよ。人間のくずだよ。(빨간 딱지 붙이고 괴롭히거나 하는 최하 최악 인간이야. 인간 쓰레기야.)」라 말하며 「最低最悪」「人間のくず」와 같이 직접적으로 상대를 헐뜯는 표현을 사용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5. 맺음말

이상 일본의 영상자료에서 나타난 남녀간의 다툼 장면 분석을 통해 분노 표출 발화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화유형은 ‘주장표현하기’ ‘감정어 표출’ ‘이유설명하기’ ‘설명요구하기’ ‘상대의 발언거부’ ‘빈정거리기’ ‘이야기 중단시키기’ ‘경고·협박’ ‘경멸·비난’과 같이 9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었다.

남녀 모두 ‘주장표현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남녀간의 다툼 장면’에서는 일본인은 대체적으로 분노 표출을 억제한다는 종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성차를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이유설명하기’ ‘상대의 발언거부’ ‘빈정거리기’ ‘이야기 중단시키기’ ‘경고·협박’ ‘경멸·비난’ 유형을 더 많이 사용했으며, 여성은 ‘주장표현하기’ ‘감정어 표출’ ‘설명요구하

기'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남성에게 '경멸·비난' 유형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다툼 장면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조금하고 공격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 중단시키기'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남성은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그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설명요구하기'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의문형을 사용하며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집요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볼 수 있다. 또한 '주장표현하기'와 '감정어 표출'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한 것에서 여성은 분노의 이유를 보다 솔직하고 자세하게 표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일본인 젊은 남녀의 담화만을 대상으로 분노 표출 양상에 관해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감정이 어떤 배경을 갖고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 역사적 맥락과 시선을 일일이 따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고 한계다. 상하관계나 친소관계에 따라 분노 표출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한 분노 표출에 있어서 시선, 침묵, 동작 등의 '비언어 행동'의 특징에 관해서도 고찰하는 것을 추후 과제로 삼는다.

## 【참고문헌】

- 김광태(2006) 「한·일 양국인의 남녀별 감정표출의 양상 : 인지모형을 통한<노(怒)>의 분석」 『일어일문학연구』 제63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17-36.
- 김귀순(2011) 『젠더와 언어 = Gender and language :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녀의 소통 전략』, 한국문화사, pp.45-69.
- 김지원(2015) 「분노 표출 양상에 관한 한·일 대조연구-이성간의 다툼장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연희(2014) 「일본어 분노의 감정표현 사용양상-담화상의 감정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8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120-146.  
(DOI:https://doi.org/10.17003/jllak.2014.89.1.129)
- 案達太郎(1999) 『日本語疑問文における判断の諸相』 くろしお出版.
- 泉子・メイナード(2001) 『恋するふたりの感情ことば』, くろしお出版, pp.12-17, pp.225-262.
- 井出祥子他(1985) 『女性の敬語の言語形式と機能』 文部省科学研, 究費研究成果報告書.
- 林始恩(2016) 「日本語の友人同士の話におけるけなし行動について-性別による違いに注目して-」 『일본언어문화』 제36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61-78.  
(DOI:https://doi.org/10.17314/jjlc.2016..36.003)
- 宇佐美まゆみ(1997) 「基本的な文字化の原則(Basic Transcription System for Japanese:BTSJ)の開発について」, 『日本人の談話行動のスクリプト・ストラテジーの研究とマルチメディア

- 教材の試作』平成7年度～平成8年度文部省科学研究費-基盤研究(C)(2)-研究成果報告書(課題番号07680312)研究代表者西仁朗 pp.12-26.
- \_\_\_\_\_(2005)「ジェンダーとポライトネス-女性は男性よりポライトなのか?」『日本語とジェンダー』第5号, 日本語ジェンダー学会, pp.1-12.
- 岡本真一郎(2007)「皮肉:何をどのように伝えているのか」『ことば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ナカニシヤ出版, pp.156-176.
- 木野和代(2000)「日本人の怒りの表出方法とその対人的影響」『Th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70(6), The Japanese Psychological Association, pp.494-502.  
(DOI:https://doi.org/10.4992/jjpsy.70.494)
- 鈴木麻里(2008)「感情表現の男女差」『東京女子大学言語文化研究』17号, 東京女子大学言語文化研究会, pp.39-50.
- 曹英南(2013)「韓国語と日本語の割り込み発話の対照研究-疎の関係の男女の雑談会話をデータとして」『일본어문학』 제59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37-56.  
(DOI:https://doi.org/10.18704/kjll.2013.12.59.37)
- Argyle, M.(1986) "Cross-cultural variations in relationship rul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1(1-4), pp.287-315.  
(DOI:https://doi.org/10.1080/00207598608247591)
- Barrett, F.(2000) "Sex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9), pp.1027-1035.
- Brown&Levinson.(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york, pp.68-71.
- Deborah Yurgelun-Todd, William D. S. Killgore, and A. D. Young.(2002) "Sex Differences in Cerebral Tissue Volume and Cognitive performance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Reports*, 91(3), pp.743-757.  
(DOI:https://doi.org/10.2466/pr0.2002.91.3.743)
- LaFrance, M.(2003) The contingent smile: "A meta-analysis of sex differences in smiling.", *Psychological Bulletin*, 129(2), pp.305-334.
- Lakoff, G.(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397-406.
- Lansdell, H.(1964) "Sex differences in hemispheric asymmetries of the human brain.", *Nature*, 203(4944), p.550.
- Stephen O.(1985) "Toward a Model of Member's Methods for Recognizing Interruptions.", *Language in Society* 14(1), pp.31-41.  
(DOI:https://doi.org/10.1017/S0047404500010927)
- Tannen, Deborah.(2001)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Quill, pp.188-189.

논문 투고 일자 : 2019. 05. 29. 논문 심사 일자 : 2019.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9. 08. 05.
--

< 要 旨 >

日本人男女の怒りの表出の様相に関する研究  
—喧嘩の場面の分析を通して—

金智媛

本稿は日本人男女の喧嘩場面における怒りの表現の様相を考察した。他者への怒りの表出はより攻撃的に捉えられ、相手の面子を脅かす行為であるため様々な言語的ストラテジーが用いられると考えられる。それにも関わらず怒りに関する従来の研究では日本人は感情を抑制するという報告が多い。そこで本稿では日本人は親しい関係においても怒りの表出を押さえるのか、また、怒りの感情表現において性差は表れるのかという点を考察した。日本のドラマ及び映画から親しい関係である異性間の喧嘩の場면을対象とし、怒りの表出における男女の言語行動の特徴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試みた。

その結果、怒りの表現の発話類型は「主張表現」「感情語の表出」「理由説明」「説明要求」「相手の発言を拒否」「皮肉」「話を中断させる」「警告・脅迫」「軽蔑・非難」など、9つ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た。

また、親しい異性間の喧嘩場面において日本人は「主張表現」類型を最も多く使うことが分かった。さらに、男性は女性より「相手の発言を拒否」や「軽蔑・非難」類型をより多く使い、女性は男性より「説明要求」類型をより多く使い怒りを表出す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Aspects of anger expressions in Japanese men and women  
- A study based on scenes portraying arguments -

Kim, Ji-Won

This study analyzes anger expression patterns of Japanese native speakers in male-female verbal disputes. Usually, anger expression patterns tend to be violent, attempt to humiliate the other party, and have various linguistic pattern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Japanese people generally control their emo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Japanese people conceal their anger despite being, in some cases, intimate with their counterparts. Additionally,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gender differences play a role in anger expressions.

Based on portraying verbal disputes in Japanese movies and dramas, the anger expression patterns specific to gender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were analyzed.

The anger expression patterns were classified into 9 language behavior categories: 1)Assertion 2)Expression of emotional language 3)Reason explanation 4)Explanatory demand 5)Rejection of counterparty's speech 6)Sarcasm 7)Interruption 8)Warning/Intimidation 9)Contempt/blame

The results show that Japanese native speakers tend to use assertive expressions. Moreover, the results highlight gender differences: women commonly used explanatory demands while males typically used sarcasm and showed contempt/blame.